

金기자의 一問日答 김세종 아셈중기친환경혁신센터 부이사장

“中企 돕는 해외 지원기관 집적화해야 시너지 발휘”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글로벌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덤빌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해외시장이다. 특히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정책이 수도 없이 많지만 막상 활용하려면 쉽지 않을 뿐더러 벽도 높다는게 현장의 목소리다.

중소기업연구원을 역임한 아셈중기친환경혁신센터(ASEIC·아셈) 김세종 부이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해외시장을 끊임없이 노크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국내에만 사업이 쏠리면 경기 변동이나 제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외비중이 30% 정도인 독일이나 일본 기업들은 완충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시장 다변화가 필요한 것은 이때문이다. 한 때 중국에만 생산이나 판매를 집중했던 우리 기업들이 ‘사드(THAAD)’에 휘청거린 것이 대표적인 예다. 추가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외로 나가야 한다. 기업들은 글로벌 전략을 잘 짜고, 정부나 지원기관들은 기업들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현지에 나가있는 여러 지원기관들을 한 곳으로 집적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김세종 부이사장에게 우리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셈’은 이노비즈협회가 당연적으로 이사를 맡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 업무는 부이사장이 총괄하고 있다.



김세종 아셈중기친환경혁신센터 부이사장 /김승호 기자

“우리 기업을 돕기 위해 해외에 나가있는 수많은 지원기관들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흥미롭다.

“해외에 가 보면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많은 기관들이 진출해 있다. 일부는 집적화가 돼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다. 이젠 지역(거점)별로 ‘한국비즈니스센터’를 만들어 이들 기관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기관끼리의 협력이 극대화되고, 부족한 인력의 단점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해외에 가장 많은 네트워크를 두고 있는 KOTRA의 역할도 중요하다. “물론이다. 말한대로 해외에 가장 많이 나가 있고 조직화돼 있는 것이 KOTRA의 장점이다. 하지만 코트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는 한 곳에 모여있는 다른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KOTRA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으로 계속 유지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앞서서도 중소기업부가 만들어질 때 KOTRA의 거취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참에 KOTRA의 소관 부처를 (중기부로) 옮기는 것도 대응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역할을 잘 하고 있는 KOTRA가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지원기관들이 더욱 중점을



을 뒤야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가면 진성바이어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호소한다. 열번 나가야 한 번 정도 (진성바이어를) 만나는 수준이다. 정부의 지원사업은 너무 단기적이고 효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긴 호흡을 갖고 현지 공관이나 지원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진성바이어를 찾아 필요한 기업들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 해당 국가의 관보를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 한국에서 받은 인증이 주요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교차인증’도 더욱 적극 추진해 기업들이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이중삼중으로 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사업이 단기적이고 효과에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성공불용자가 대표적이다. 초기 수출 기업들에게 자금을 집중 지원해 성공시엔

코트라와 협업... 中企 진출길 확대 기관, 진성바이어 적시에 제공하고 인증 통용위한 ‘교차인증’ 추진해야 ‘에스컬레이터 전략’ 글로벌 고도화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고, 실패시엔 원리금을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해주는 것이 성공불용자다. 우리나라는 수출기업의 60~70% 가량이 100만달러 이하이다. 이들에겐 지역 및 품목 다변화가 절실한 데 이럴 때 성공불용자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하고 다른 기업들에게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공불용자를 받은 후 수출에 실패한 기업에 대해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받지 않는다고 하면 ‘모럴해저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이다.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정부나 지원기관이)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다. 글로벌 진출의 1차적 책임은 당연히 기업이 져야 한다. 정부 지원을 전적으로 믿을 수도 없다. 기존에 바우처제도가 있었지만 이왕이면 한정된 자원을 기업이 절실하게 원하는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가장관

급 부처로 격상된지 1년이 안 돼서 그런지 산업부가 해외에 파견하는 상무관과 같은 자리가 하나도 없다. 중기부도 일부 자리를 만들어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 지역엔 상무관과 같이 중기부의 ‘중소기업협력관’을 뒤야한다고 생각한다. 총영사가 나가 있는 베트남 호치민, 중국 시안, 미국 LA, 독일 프랑크푸르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에 시범적으로 중기협력관을 두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중소기업들이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진행하고 ODA (공적개발원조)나 KSP(지식공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현재 5개국에 있는 중소기업 기술교류센터를 인도와 말레이시아 등에 더 추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해외에 공장을 짓고 제품을 파는 것만을 놓고 ‘글로벌화’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인바운드 글로벌, 아웃바운드 글로벌로 나눌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시대를 맞고 있고, 온라인 쇼핑이 무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국내에서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지 인바운드 글로벌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일부에서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지만 중소기업의 신제품, 기술제품에 대해 매달 경진대회를 열어 TV나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매출이 발생하면 면세점 안테나샵을 통해 팔고, 반응이 좋으면 해외에서 파는 ‘에스컬레이터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중소기업 제품을 팔기 위한 인바운드 전략에 대해선 정책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을까 궁금하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 제품을 살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디자인과 포장,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한다. 입국장 면세점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어 부족한 2%를 이런 부문에서 채워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을 빼놓지 않을 것 같다. 개성공단을 포함해 향후 북한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나.

“경협 제재가 풀리는 것을 전제로 북한 전역을 놓고 범정부적으로 중장기 산업 플랜을 짜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이를 위해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시장을 겨냥해 개성공단과 주변지역을 동북아 생산거점으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향후에도 정책을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셈(ASEIC)이 우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아울러 아셈에 대한 설명도 부탁한다.

“아셈이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아젠다 중에서 아세안과 유럽국가의 친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해주는 조직으로 탄생한 만큼, 정부와 정부간 협상에서 매우 유리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협약을 맺어 자카르타에 운영하고 있는 그린비즈니스 기업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기업 10여 곳이 입주해 있으며, 이들은 3년간의 지원을 통해 진출을 넓힐 수 있다. 또 각국이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아셈이 배출권 획득, 친환경 설비 수출 등에 대한 지원이나 컨설팅도 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각국의 관련 정책, 제도, 동향 등을 모아 웹진을 발간·제공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공업화학회 회장에 건국대 문두경 교수

건국대학교는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문두경 교수(사진)가 지난 10월 31일 한국공업화학회 추계 학술대회 총회에서 제 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6일 밝혔다. 회장 임기는 1년이다. 문 교수는 건국대 졸업 후 동경공업대학(Tokyo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3년부터 건국대 공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건국대 공과대학 부학장, 학장 등을 지냈고, 한화 케미컬 중앙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 벤처기업 대표 등을 역임했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 졸업생 임범두 박사 논문 ‘네이처 아스트로노미’ 게재

세종대학교(총장배덕호)는 물리천문학과 졸업생 임범두 박사(사진)가 주도하는 연구진이 네이처(Nature) 자매지 ‘네이처 아스트로노미(Nature Astronomy)’ 최신호에 논문을 게재했다고 6일 밝혔다. 논문 제목은 ‘넓은 범위의 자전속도 분포에 의한 확장된 주계열 전향점(Extended main sequence turn-off originating from a broad range of stellar rotational velocities)’으로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성환경 교수, 벨기에 리에주대학교 연구진,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진이 참여했다. /한용수 기자



조희연 “유치원 3법’ 통과돼야 비리해결 가능”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간담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발의된 관련 3개 법안(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박용진 의원이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 서울시의회 주최로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박 의원은 이날 “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6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제 발제를 하고 있다. /뉴스1

3법 개정안은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꾸고,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부당사용 시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징계나 중대

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규정과 교육부·교육청이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규정 등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중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3법 개정안에 큰 이견이 없지만, 한국당은 별도의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나 아직 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회에서 발의된 3법안이 시행된다면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보다 강력한 추진 동력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용수 기자 hys@T